

“25년간 갈 곳 없는 아이들 돌본 프랑스 신부”

글 임종명 작가 / 사진 민영주



경기도 수원 복수동성당 앞뜰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허보록 신부. 아이들과 한국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허 신부는 평생 아이들과 함께하길 원한다.

※ 허보록: 1959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3남2녀의 차남이자 둘째로 출생. 프랑스 캉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로마 그레고리어나신학대 졸업. 1990년 한국 입국. 강화도 내가 공소 신부, 영주 하망동성당 보좌신부, 안동 옥산성당 주임신부 역임. 영주 다섯 어린이집, 안동 프란치스코집·글라라의 집 개설. 현재 군포 요한의집·야고보의 집, 과천 베드로의 집 운영 중. 군포시장상, 위대한 프랑스인상, 청소년푸른성장대상 등 수상.



사제관에 보관 중인 여러 사진들. 허 신부가 가리키는 사진은 초창기 다섯 어린이 집에서 돌본 아이들이고, 그 옆은 199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사제 서품을 받는 사진이다.

파리의방전교회 소속인 허보록(59·영세명 필립보) 신부는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아버지’로 통한다. 프랑스 출신으로 본명이 필립 블로(Philippe Blot)인 허 신부는 사제 서품을 받은 1990년 한국에 파견됐다. 이후 25년 동안 가족 해체나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며 생활하도록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설립해 운영해왔다.

그동안 허 신부의 그룹홈을 거쳐 간 청소년은 200여 명에 이른다. 그들에게 허 신부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이들은 지금도 추석, 설과 같은 명절이나 크리스마스에 허 신부를 찾아와 한참 동안 이야기꽃을 피우다 간다. 허 신부는 이런 공로로 제30회 아산상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허 신부는 1959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5남매(3남2녀)의 둘째로 태어났다. 고향엔 캄보디아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에서 건너온 ‘보트 피플’ 50여 가구가 살았다. 본당 신부의 부탁으로 허 신부 가족은 5가구의 보트 피플을 뒷바라지했다. 어머니는 주부들에게 프랑스 요리나 집안일을 가르쳤고,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해줬다. 허 신부의 형제들은 연배가 비슷한 아이들의 학업을 도왔다.

허 신부는 “부모의 봉사활동을 보면서 나도 크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부모의 독실한 신앙심 탓이었을까. 허 신부의 형과 동생도 사제의 길을 걷고 있어 고향에선 ‘3형제 신부’로 유명하다. 형(62)은 로마 교황청 전례국 소속 고위 성직자이며, 동생(56)은 프랑스 라옹의 신부이자 신학대 교수다. 첫째 여동생(58)의 장남도 2016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허 신부의 롤 모델은 테레사 수녀(1910~1997)다. 어릴 때부터 테레사 수녀를 동경해 가톨릭 봉사단체에서 활동했다. 1979년 테레사 수녀가 노벨평화상을 받자 테레사 수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그의 저서를 사서 읽기도 했다. 허 신부는 노르망디의 캉대 학교 국제경제학과에 다니며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사제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허 신부는 사제가 되기 위해 로마에서 공부하던 시절, 운 좋게도 테레사 수녀를 네 차례 만났고 직접 신앙 상담을 하기도 했다.

무의탁 청소년들과 만나다

운동을 좋아한 허 신부는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프랑스의 징병제에 따라 알프스의 스키부대에서 1년간 복무했다. 군대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운 동료들을 도와주거나 고민 상담을 해주자 성직자가 되기 전에 이미 ‘신부’라는 별명을 얻었다. 제대 후에는 교황청에 소속된 그레고리어나신학대학에 입학했다. 1551년 예수회 창립자인 이냐시오 데 로욜라 성인이 세운 유서 깊은 그레고리어나대학에선 6년간 선교와 영성을 공부했다. 파리의방전교회에는 재학 중이던 1986년 입회했다.

1990년 대학 졸업 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집전한 사제 서품식에서 허 신부는 “평생 마더 테레사처럼 버림받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했다. 허 신부는 “서품식 중 오토리기도하는 부복 의식에선 ‘주님,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회상했다.

사제 서품을 받고 파리의방전교회의 지시에 따라 부임한 곳이 한국이었다. 2년간 서강대 한국어학당에서 우리말을 배운 뒤 1992년 처음 맡은 보직은 강화도 내가 공소(본당보다 작은 천주교 교회) 신부였다. 1993년 경북 영주의 하망동성당 보좌신부로 부임한 허 신부는 그해 11월 17일 성당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던 중에 급식소 주변을 서성이던 행색이 초라한 10대 아이들 5명을 발견했다. 허 신부는 아이들을 불러 배불리 먹인 뒤 도움이 필요하면 저녁에 다시 찾아오라고 했다.

아이들은 그날 저녁 다시 찾아와 “잘 곳이 없으니 재워 달라”고 했다. 허 신부는 그날 아이들을 사제관과 교리실에 나눠 재웠다. 아이들과 상담해보니 어머니가 가출했거나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자여서 학교에 가지 않고 영주시장 근처를 배회하던 결손가정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을 며칠 성당에서 재우며 이들에게 보금자



4층인 군포의 그룹홈 2층엔 아담한 경당이 자리하고 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 아이들이 경당에 모였다.

리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허 신부는 작은 집을 구해 이들을 살게 했다. 이곳이 바로 그룹홈 ‘다섯 어린이집’이다. 허 신부의 무의탁 청소년들을 위한 삶은 이렇게 시작했다. 테레사 수녀처럼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겠다는 서원은 영주의 10대 청소년 5명으로 인해 지킬 수 있게 됐다.

안동에서 일어난 아픈 일화

허 신부는 이듬해 안동 옥산성당 주임신부로 자리를 옮겼다. 허보록이란 한국 이름은 당시 안동교구장이던 박석희 주교가 한국에서 사목 활동을 하려면 필요하다며 지어준 이름이다. 성(姓)은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으로 한국에서 선교 활동한 텔리에(Tellier) 신부의 한국 성을, 이름은 대구와 안동에 공소를 많이 만든 로베르(Robert) 신부의 한국 이름에서 따왔다.

안동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다섯 어린이집은 1995년까지 계속 운영했다. 안동에도 무의탁 청소년의 생활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낀 허 신부는 1996년 9월 25일 낙동강 옆의 구 안동농민회관 건물 2개 동을 개조해 ‘성 프란치스코의 집’과 ‘성 글라라의 집’을 열었다. 프란치스코의 집은 남자아이들이, 글라라의 집은 여자아이들이 각각 12명씩 지냈다. 글라라의 집에는 원주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소속 수녀 2명이 배치됐다. 이 시설들은 지금도 운영되지만, 허 신부가 수원교구로 떠난 뒤에는 여자아이들만 생활하고 있다.

1997년 초여름 프란치스코의 집과 글라라의 집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다. 한 수녀의 부탁을 받아 살인 전과자에게 그룹홈의 잡일을 맡겼는데 하루는 술에 취한 그가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난동을 부렸다. 이를 말리던 허 신부는 전과자가 휘두른 칼에 가슴을 깊이 찔렸다. 허 신부는 안동병원에서 6개월 치료받은 데 이어 다시 프랑스에 가서 6개월 동안 더 치료를 받았다. 프랑스에서 건강을 회복하자 부모와 형제, 친구들은 한국이 위험하니 돌아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허 신부는 “한국은 하느님이 정해주신 곳이므로 다시 돌아가 계속 사목의 길을 걷겠다”고 말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999년 한국에 돌아온 허 신부를 기다리는 곳은 수원교구였다. 당시 수원교구에는 벨기에 출신이자 살레시오수도회 소속으로 허 신부의 영적 지도신부이던 파레몬도 신부가 있었다. 허 신부가 안동에서 겪은 끔찍한 사건을 익히 알던 파레몬도 신부는 허 신부에게 경기도 군포에서 청소년 사목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침 당시 수원교구가 운영하던 양로원인 마리아의 집이 청계산 인근으로 옮기면서 기존 양로원 시설인 군포시 당동 1층 주택이 비어 있었다. 그해 허 신부가 그곳에 개설한 그룹홈 ‘성 요한의 집’은 지금까지 20년째 운영되고 있다.

허 신부는 2007년에는 같은 건물에 또 다른 그룹홈 ‘성 야고보의 집’을 추가로 개설했다. 현행법상 그룹홈은 정원이 7명인데 수용 인원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과천에 ‘성 베드로의 집’이라는 그룹홈을 하나 더 만들었다. 세 곳 모두 부모의 이혼과 가정폭력 등으로 가족이 흩어진 남자아이들의 생활공간으로 야고보의 집은 고등학생, 요한의 집과 베드로의 집은 초·중학생 아이들이 지내고 있다.

“신부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

허 신부는 부모의 국내 정착을 위한 맞벌이나 이혼 등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새터민 자녀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현재 요한의 집에서 2명, 베드로의 집에서 1명 등 3명의 새터민 자녀를 돌보고 있다.

그룹홈 세 곳의 가훈은 ‘행복한 사람, 정직한 사람, 건강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다.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 지은 가훈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마음과 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허 신부의 보살핌을 받다가 만 19세가 지나 그룹홈을 떠난 아이들(자립생)은 200여 명에 이른다. 고등학교 졸업생 7명 중 1명 꼴로 대학에 진학했고, 나머지는 취업했다. 특히 허 신부가 처음

운영한 다섯 어린이집의 자립생들은 틈틈이 허 신부를 찾아와 후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다섯 어린이집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인쇄소에 근무하는 허영아(37) 씨는 “1993년 처음 신부님을 만난 이후 줄곧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저처럼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찾아내고 돌봐주신 신부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고마워했다.

군포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3년마다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군포의 그룹홈 모두 A등급을 받았다”며 “그룹홈들은 대체로 아이들의 입·퇴소가 잦는데 요한·야고보의 집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오래 머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상 심사위원으로 현장조사에 참여한 이봉주(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위원은 “그룹홈 형태의 소규모 아동시설을 선도적으로 시작한 공로가 충분히 인정되며, 오랜 기간 초심을 잃지 않고 가정 밖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무성(송실사이버대 총장) 심사위원은 “허 신부는 아동 그룹홈이라는 혁신적인 사회봉사 모델을 제시했으며, 지역사회로 들어가 가정처럼 아이들을 보호하는 모델은 여전히 모범이 되고 있다”며 “특히 함께하는 청소년과 직원들의 밝은 모습에서 그룹홈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소감을 밝혔다.

그룹홈의 아이들이 모두 순조롭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경우 허 신부는 “꾸준히 설득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전했다.

실제로 부모에게 버려진 어릴 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러 교도소에 수감된 자립생이 있었다. 이 자립생은 뒷바라지해줄 사람이 없자 허 신부에게 연락했고, 허 신부는 지방의 교도소로 매주 면회를 가는 한편 월 1회 편지를 보내면서 힘이 돼줬다. 허 신부는 이처럼 그룹홈을 떠나도 정착할 곳이 없는 자립생들을 위해 3명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자립관을 사비로 운영했으나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지금은 문을 닫았다.

허 신부의 사제관은 4층인 군포의 그룹홈 옥상에 들여놓은 컨테이너다. 옥탑방에서 만난 허 신부는 28년간의 한국 생활에 대해 묻자 그룹홈과 성당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의 이름을 일일이 들려줬다. 초기에 허 신부 혼자 운영해온 그룹홈 세 곳에는 현재 각각 3명(시설장 1명 포



허 신부는 고향인 프랑스에서 ‘3형제 신부’로 유명하다. 2002년 여름 형(허 신부 왼쪽)과 동생(허 신부 오른쪽)이 내한했을 때 함께 용인민속촌을 찾았다(위). 그룹홈 옥상에 작은 컨테이너를 들여놓고 사제관을 만들었다. 사제관 입구에서 쓰다듬는 개는 25년 전 허 신부가 처음 보살핀 아이가 어른이 되어 선물했다(아래).

함)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요리나 청소 등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프랑스인 1명을 포함해 10명이다. 그룹홈 개설 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도와준 봉사자도 있다.

허 신부는 “한국에서 아름답게 사는 분들을 많이 만나 큰 도움을 받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분들이야말로 하느님이 보내주신 가족이자 내가 한국에서 계속 사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힘”이라고 말했다. ☺